

# “유라시아 중심 통 큰 지방외교 펼쳐야”

### 전북백년포럼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와 전북자치도의 역할’ 주제로… 지방외교 활성화·대응 전략 모색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이 가진 강점을 살려 우크라이나와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지방외교를 활성화시키는 대담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대사는 전북연구원이 지난 24일 마련한 ‘전북 백년포럼’ 특강에서 “현 시대는 변동(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 복잡성(Complex), 모호성(Ambiguity)을 키워드로 하는 ‘혁명과 무브먼트’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라시아가 가진 비전과 가능성을 보고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무대에 대항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지방외교는 중앙정부의 외교를 보완할 뿐 아니라 SOC,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 실질적인 현안 협력에 가능한 대안”이라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일회적·산발적 교류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와 전북자치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북 백년포럼이 지난 24일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협력에 한정된 지방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글로벌 아젠다와 연계한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지방외교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농생명 및 재생에너지에 강점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우크라이나 및 유라시아 SDGs를 타겟팅하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며, “지방외교 ‘운용의 묘’를 발휘해 농업

파일럿 프로젝트 선정, 신재생에너지 협력, 항공산업 클러스터 협력, 전북 내 지속가능 공동체 테스트베드 구축 등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위기가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 전 대사의 생각에 공감한다며, “전북이 지방외교 활성화로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서 더 나아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와 전북자치도의 역할’을 주제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잠재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 전북경찰청,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동참

### 전북 자치도, 전북경찰청-전북농협과 고향사랑 기부활성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막판 홍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최종문 청장), 전북농협(김영일 본부장)과 의미있는 고향사랑기부 동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직접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며,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청 직원에게도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기부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미(미)있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농협 및 14개 시군과 함께 11월부터 추진해 온

캠페인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쌀 소비 촉진을 연계한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고향사랑기부의 단순한 기부금 모집을 넘어서, 도내 현안과 연결된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축·수산물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의미있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전북경찰청의 선도적 기부실천이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세액공제(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및 기부액의 30% 만큼 해당 지역 답례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만호 기자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12개 기업 관계자들에게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자치도, 유망중소기업 12개사 선정

### 인증서·인증현판 수여·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5년간 지원 김관영 도지사, “중소기업은 전북 경제 성장 견인의 주역”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12개 유망중소기업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은 △(주)국도특장(대표 김재영) △나무숲(주)(대표 조동술) ▲△(유)동방이노베이션(대표 김준식) △(주)미소능력개발센터(대표 강현신) △비티에스(유)(대표 유춘열) △(주)성현(대표 김호성) △(주)아이비스(대표 강주일, 강세영) △(주)아이오트(대표 김영석) △(주)엘에스이엔지(대표 서준원) △장수도깨비동굴김치영농조합법인(대표 고석열) △(주)피엘

티(대표 최규영) △(유)한빛글로벌(대표 성지호, 이진희) 12개 기업이다.

이번 유망중소기업은 12개 기업 선정에 총 37개 기업이 신청해 약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벌인 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 최중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 12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유망중소기업 수상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지정기간 5년 동안 도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 및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까지 우대 지원되며,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가점이 부여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망중소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3억원 이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12여개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중소기업이야말로 전북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라며, “앞으로도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노사 화합 모범지역 선포 등 기업하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증 획득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축산물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재인증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세계 108개국에서 공인력을 인정받는 시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 시험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품질, 인력, 시설, 환경, 시험역량 등 모든 측면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재인증은 특히 한국산 삼계탕의 유통연합(EU) 수출 허용 조건인 잔류물질검사기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요구를 충족시켜, 삼계탕뿐 아니라 만두 등 다양한 복합식품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증을 통해 닭고기 생산의 중심지인 전북이 삼계탕뿐만 아니라 만두 등 복합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인시험기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K-푸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2024 건설교통 우수 시군 시상식 개최

###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퍼포먼스도 함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전북개발공사 강당에서 ‘2024년 건설교통 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설산업 활성화, 도로 유지, 대중교통 정책, 주택·건축 정책, 토지·지적 관리 등 총 5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업 활성화 부문에서는 익산시와 고창군이, 도로 유지관리 부문에서는 남원시와 장수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중교통 정책 부문에서는 김제시와 진안군이, 주택·건축 정책 부문에서는 익산시와 임실군이, 토지·지적 관리 부문에서는 정읍시와 부안군이 각각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시군은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며, 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도’라는 슬로건 아래, 건설교통국 직원들과 14개 시군 공무원 150여 명이 손팸을 들고 참여해 전북의 글로벌 스포츠 도시 도약 의지를 강렬히 표현했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상식이 건설교통 정책 분야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시군 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2025년을 청림·공정 원년의 해로”

###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내년부터 주요 추진사업의 기술심의·평가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특히, 2025년은 공사 설립 이래 가장 많은 기술 심의와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공정·청림의 운영체제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이다. 정재영 공정심의처장은 “2025년은 공사 설립 이래 가장 많은 기술심의·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청림·공정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며, “2025년을 공사 제3기 기술지원위원회 ‘청림·공정 원년의 해’로 삼고, 공정사회 청림 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